

# 문화로 소통하고 우정 다졌다



광주와 대구 청년들이 문화로 소통하는 '2018 달빛소나기'가 지난 17일까지 이틀 동안 대구에서 펼쳐졌다. 참가자 130여 명은 대구의 명소 김광석길과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 근대골목 등을 찾아 '미션 투어' 등을 하며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 광주일보·영남일보 주최 '2018 달빛소나기' 대구서 열려

광주 청년 30명·대구 100명 '1박2일' 교류의 장 김광석길·방천시장·삼성창조캠퍼스 등 탐방 하상욱 시인 강연·디제이 파티·뮤지컬 갈라쇼 근대골목 미션 투어·향촌문화관 등 돌며 우정 다져

광주와 대구 청년들이 문화로 뭉쳤다. 광주일보와 영남일보가 주최·주관하고 광주시·대구가 후원하는 '2018 달빛소나기'가 지난 16~17일 대구에서 펼쳐졌다.

영호남의 교류와 화합을 다지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5회에 걸쳐 열린 이번 행사에는 광주지역 청년 30명과 대구 청년 100명이 참여했다. 달빛은 대구와 광주를 상징하는 '달구벌'과 '빛고을'을 합친 말로 '소나기'는 '소통', '나눔', '기쁨'의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졌다.

지난 7월 대구 청년들이 이틀 동안 광주를 찾은 데 이어 이번에는 광주 청년들이 대구를 찾아 대구 김광석길과 방천시장,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 근대골목 등을 찾아 서로의 문화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대구 고속도로를 따라 2시간 30분을 달린 광주 참가자들은 첫날 일정을 중구 대봉동 김광석길을 걷는 것으로 시작했다. '음유시인' 김광석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9년 11월의 작가가 모여 꾸민 350m 거리의 골목에는 평일 1만명, 주말 2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가을의 기도' 김현승 시인, '무등산 화가' 이강하 화백, '중국의 3대 음악가' 정율성 등 광주 양림동을 거쳐간 수많은 예술인들을 만날 수 있는 양림동 근대문화유산산과 종종 비교되는 곳이기도 하다. 김광석이 나고 자란 골목 옆에 자리잡은 전통시장 방천시장은 김광석길이 생기기 전 문화예술가와 관광객이 몰려다시 활기를 찾았다. 참가자들은 해설가가 들

려주는 김광석 이야기를 듣고 저마다 사진을 찍으며 대구 골목마다 숨겨진 문화를 즐겼다.

친구들과 처음 대구를 방문했다는 김하나(23·광주시 서구 내방동)씨는 "혼자 대구 여행을 왔다면 가보지 않았을 곳을 알게 됐다"며 "명소를 직접 찾아가면서 김광석·이상화 등 대구 출신 인물에 얽힌 이야기를 접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이어 찾은 곳은 북구 짐산동 옛 제일모직 터에 자리잡은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다. 삼성 창업기념관과 복원된 삼성상회 건물 등으로 이루어진 '삼성존'과 벤처창업기업 30여개가 입주한 '창조경제존', 시민공원과 쇼핑공간 등이 9만199㎡(2만7285평) 부지에 마련됐다.

이곳을 관람한 뒤에는 중앙컨벤션센터에서 본격적으로 교류행사가 열렸다. 이날 오후 열린 '2018 달빛소나기' 개회식에는 노병수 영남일보 사장과 이홍재 광주일보 주필 등이 참석해 영호남 청년들의 친목에 힘을 보탤다. 조를 나눠 인사를 나누는 두 지역의 청년들은 함께 노래 알아맞추기 문제를 풀며 점차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하상욱 시인이 공감대를 주제로 강단에 섰고 디제이 파티, 뮤지컬 갈라쇼, 밴드 공연으로 열기는 절정에 달했다.

다음 날에는 대구시 중구 포정동 '근대골목'으로 여행을 떠났다. 경성감영달성길, 근대문화골목, 패션한방길, 삼덕봉산문화길, 남산100년향수길 등 5개 코스로 구성된 이곳은 3·1만세운동길, 계산성



'2018 달빛소나기' 교류 행사에 참여한 청년들이 디제이 파티, 뮤지컬 갈라쇼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당, 이상화·서상돈고택 등 대구의 근대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를 만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주어진 사진과 한 문장의 단서만을 가지고 장소를 찾아내서 인증 사진을 찍어야 하는 '미션 투어'를 했다. 마지막으로 대구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다양한 전시가 마련된 향촌문화관을 둘러보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홍보대사로 활동했다는 김수현(30·대구시 수성구 사월동)씨는 "달빛소나기를 통해 그동안 애국됐던 동서간 지역감정을 완전히 씻어버릴 수 있었다"며 "광주와 대구의 청년들이 문화로 공감대를 만들고 지역의 연대를 넓히는 행사가 더 많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진=영남일보 윤관식 기자  
yks@yeongnam.com



대구 '김광석길'을 찾은 광주지역 청년들이 칠판에 흔적을 남기고 있다.

2018 신양파크호텔 객실 리모델링 기념 가을축제 기간: 2018. 9. 1(토) ▶ 11. 30(금)

<p><b>축제 1</b> 객실 가을 패키지</p> <p>객실 리모델링 기념 가을 패키지 <b>60% DC</b></p>	<p><b>축제 2</b> 1층 레스토랑 '티파니' 스파게티 &amp; 스테이크 축제</p> <p>커피 ..... 3,000원  스파게티 ..... 13,000 ~ 16,000원  스파게티 코스 (스프+샐러드+스파게티+커피) ..... 22,000원  돈가스 코스 (햄+스프+샐러드+돈가스+디저트+커피) ..... 18,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햄+전채요리+스프+샐러드+스테이크+디저트+커피) ..... 50,000원</p>	<p><b>축제 3</b>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p> <p>1층 티파니 이용고객 ₩15,000당 <b>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b>  (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p>
---	--	--

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 (062)228-8000, 221-4101